

건협 강원도회, 원주지방국토청과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지역업체에 상생 기회를 제공하고 입찰 참여를 늘리기 위한 분할발주 확대

와 품질 및 효율성에서 일반공법과 차이가 없는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의 무분별한 적용 지양,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건설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개선 등이다.

도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